

론증평가에서 나서는 일반적원칙

박 광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토론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사고의 과학성과 현실성을 검증하는 척도로 됩니다.》

(《김정일전집》 제6권 401페이지)

사람들은 주장된 론증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는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인다.

일반적으로 평가는 사물현상의 가치나 수준을 론하거나 정하는것을 의미하여 쓰인다.

어떤 사물현상이든지 평가되자면 그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어야 하며 평가를 위한 자료는 해당 사물현상에 대한 측정과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론증에 대한 평가에서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해설전개한 론증을 해당 자료를 안받침하여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주장된 론증을 받아들이겠는가 받아들이지 않겠는가를 결정한다.

론증을 옳바로 평가하자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원칙을 지켜야 한다.

론증평가에서는 무엇보다먼저 론증의 주장이나 그 내용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교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혁명전사들의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이며 기준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분야의 과학리론적문제들이 원리적으로 해명되어있을 뿐아니라 실천적인 방도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하기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과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철저히 그에 기초하여 풀어나가고있는것이다.

만일 어떤 론조가 우리 당의 정책과 어긋날 때에는 그 주장이 어떻든간에 우리 당의 정책에 맞게 바로잡아야 하며 그렇게 하자면 당정책을 잘 알고 신념으로 체득하여야 한다.

론증된 주장이나 내용이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는가를 따져본다는것은 제시한 론제가 당정책에 맞는가, 론제는 옳지만 론제를 근거짓는 론거들이 당정책에 맞는가를 밝힌다는것이다.

론제자체가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지 않게 제시되었다면 그러한 론증속의 론거나 론증과정은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

론증평가에서는 다음으로 론제가 정확한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론제의 정확성은 론증이 옳게 이루어질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론제의 정확성평가에서는 제시된 론제를 론역과 결부시켜 따져보아야 한다.

어떤 주장을 할 때에는 론역이 반드시 있으므로 주장할 론제가 어느 분야나 범위의 론역을 설정하고 논의하는가를 따져야 한다.

대상은 같아도 논의분야에 따라 론증의 전개방향이 달라지므로 그에 따르는 론역으로 론증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론제의 정확성평가에서는 론제를 나타내는 언어적표현의 명백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모든 논제는 단어나 문장과 같은 언어적수단들로 표현된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동일한 단어나 문장이 여러가지 의미를 가질수도 있다. 이로부터 주장자의 말을 듣거나 글을 읽을 때 해당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원래의 의미와 다르게 이해할수 있게 서술되지 않았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논제를 나타내는 언어적표현들이 어떤 사고환경에서 쓰이였는가와도 결부시켜 따져보아야 한다.

론증에서 논제를 표현하는 단어나 문장들을 사고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사용하면 여러가지로 사고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론증들은 반드시 주어진 사고환경에 알맞게 이루어진다.

만일 론증자가 논제를 표현하면서 동의문으로 된 문장을 사용하였다면 사고환경에 알맞는 문장을 골라 표현하였는가를 따져야 한다.

문장을 선택할 때 사고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것을 읽거나 듣는 사람이 사고와 행동을 바로 할수 없다. 이것은 일정한 주장이 옳게 이루어지자면 론증대상, 론증시기와 론증장소 등 그 환경에 맞는 문장이 선택되어야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일반적으로 논제를 표현할 때에는 다의어나 소리같은 말, 형상적인 표현들을 될수록 쓰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론증자가 부득불 썼다면 그 뜻이 정확히 설명되는가를 가려보아야 한다.

론증평가에서는 다음으로 론거의 정확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론증은 논제를 론거로 밝히는 론리적방법이므로 론거는 론증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론거의 정확성을 평가한다는것은 한마디로 론증자가 제기한 론거들이 옳바로 제시되었는가 즉 론제증명에 론거가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제시되었는가를 평가한다는것이다.

모든 론거는 론제증명에 필요한것이여야 한다.

허위인 론거는 논제를 근거지을수 없기때문에 불필요한 론거이다.

만일 생활과정에 《모든 금속은 물에 가라앉는다. 그러므로 새로 발견되는 X금속도 물에 가라앉을것이다.》라고 하였다면 이 주장의 론거로 되는 《모든 금속은 물에 가라앉는다.》가 허위이기때문에 론제가 옳다는것을 밝혀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론거가 허위가 아닌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한다.

아무리 진리라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명제라고 하여도 논제의 증명에 필요없다면 그러한 론거는 불필요한 론거로 된다.

주장하려는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다른 주장으로 밝혀야겠는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론증되어야 할 론제가 론증의 근거를 대신한다면 그러한 주장은 이유를 상실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근거의 자리를 론제가 차지하기때문에 근거의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증명되지 않은 주장은 그것이 진리인지 허위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주장이다. 그러므로 이런 주장을 진리인 주장으로 여기고 론거로 마구 사용하면 논제를 정확히 근거지을수 없다.

론거는 론제증명에 필요할뿐아니라 충분하여야 한다.

제시된 론거들이 주어진 논제를 증명하는데 필요하기는 하지만 불충분하다면 론제가 충분히 증명될수 없다. 어떤 론증에서는 하나의 론거만으로도 론제가 진리라는것을 충분히 밝힐수 있지만 대다수의 론증들에서는 여러개의 론거들이 결합되어야 주장의 의미를

충분히 밝힐수 있다. 이런 경우 필요한 론거들을 충분히 제시하였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필요한 론거들을 모두 밝히지 않았거나 일정한 조건에서만 정당한 명제를 다른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그 정당성을 검토함이 없이 그대로 론거로 리용하는 경우에는 물론 자기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증명하지 못하는것을 리용하여 자기 주장의 론거로 리용하는 경우에도 론거가 충분하지 못한것으로 된다.

이와 같이 론증에서 론거의 정확성평가를 하자면 그의 필요충분조건을 평가하여야 한다.

론증평가에서는 다음으로 론증과정을 평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론증과정을 평가할 때 전제로부터 결론까지의 논리적련결과정이 연역적인가와 비연역적인가의 두 측면에서 평가된다.

연역적론증을 평가할 때에는 그의 론증과정의 전제가 진리인가와 그의 론증과정에 해당하는 추리규칙을 준수하였는가를 따져보게 된다. 이것은 연역적론증의 본질적특성과 관련된다.

연역적론증의 본질적특성은 진리인 전제로부터 진리인 결론이 필연적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진리인 전제로부터 논리규칙에 따라 끌어낸 결론은 반드시 진리로 된다는것이다.

필연성은 일정한 조건에서 반드시 그렇게만 되는 사물현상들사이의 련관을 나타내는 개념이며 우연성은 일정한 조건에서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으며 이렇게 될수도 있고 저렇게 될수도 있는 사물현상들사이의 련관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연역적론증의 본질적특성이 필연성을 띤다는것은 전제와 결론사이의 련관이 필연적이라는것이다.

모든 론증방법이 진리인 전제로부터 언제나 진리인 결론을 끌어내는것은 아니다. 대부분경우에 진리인 결론이 나오지만 어떤 경우에는 허위인 결론이 나오는것도 있다.

그러나 연역적론증에서는 전제가 진리이면서 논리규칙을 지키면 언제나 진리로 된다. 이것은 전제가 허위이면 그로부터의 결론이 진리로 될수 없다는것도 포함한다.

이처럼 연역적론증에서는 결론의 진리를 위하여 전제가 진리일것을 요구한다.

연역적론증에서는 전제가 진리여도 논리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결론이 진리로 될수 없기때문에 해당하는 논리규칙을 지킬것을 요구한다.

논리규칙은 진리인 전제로부터 진리인 결론이 나오게 하는 필수적조건을 반영한것으로서 사고의 타당성을 보장해준다.

사고의 타당성문제는 전제와 결론의 련결형식에 관한 문제이지 전제와 결론을 이루는 명제들의 진리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전제나 결론에 담겨져있는 내용이 현실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것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는 관계없이 전제가 결론의 충분한 근거로 되고 그로부터 필연적으로 해당하는 결론이 나오면 타당하다고 본다. 다시말하여 전제를 인정하면 결론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이다.

실례로 《모든 M은 P이다. S는 M이다. S는 P이다.》에서 S와 M, P에 어떤 개념을 대입하든지 두 전제가 다 진리이라면 그의 결론은 반드시 진리로 된다. 이런 경우 형식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사고의 타당성을 보장한다는것은 전제가 진리일 때 그로부터 필연적으로 진리인 결론이 나오도록 전제와 결론을 련결한다는것이다.

이처럼 연역적론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을 끌어내는 과정이 필연성을 띤기때문에 연역적론증을 평가할 때에는 론증의 전제가 진리인가와 론증과정에 해당하는 추리규칙을 준수

하였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비연역적론증의 평가에서는 론증의 전제가 결론을 담보하는 지지정도가 어떤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즉 전제로부터 이끌어내는 결론의 믿음성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론증의 전제가 결론에 주는 지지정도를 평가한다는것은 전제가 결론에 주는 지지정도가 강한가 약한가를 평가한다는것이다.

비연역적론증에서 전제가 결론에 주는 지지정도가 강한가 강하지 않은가를 평가하는 것은 비연역적론증의 본질적특징인 전제로부터 나오는 결론의 개연성때문이다.

비연역적론증의 한 형태인 귀납적론증을 볼 때 이 론증에서는 구체적인 개별적사물현상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그 개별적사물현상을 포함한 부류전체으로 일반화하여 결론을 이끌어내지만 부류의 모든 대상들을 다 전제로 제시하지 못하므로 결론이 개연성을 가질수밖에 없다.

비연역적론증의 한 형태인 류추적론증도 마찬가지이다.

류추적론증에서는 이미 알고있는 대상에 대한 징표를 비교를 통하여 그와 류사한 대상으로 옮기는 방법의 론증인것만큼 어떤 징표를 옮기여 결론을 근거짓는가에 따라 결론이 정확할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다. 때문에 결론이 개연성을 가질수밖에 없다.

류추의 결론이 개연성을 가지는것은 사물현상이 가지는 징표들이 사물현상과 필연적인 련관을 맺고있다는 예측에 기초하는것과 관련된다.

론증평가의 일반적원칙은 수많은 구체적인 론증분석과 평가에서 누구나 지켜야 할 보편적인 원칙이다.

우리는 론증평가의 일반적원칙을 잘 알고 사업과 생활에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 당 정책을 옹위하는데 앞장서야 할것이다.